

현대·GS, 이라크 정유설비 수주 박차

Karbala에 원유정제 및 부대설비 건설 ... 현대 40%에 GS 20% 지분

현대건설과 GS건설이 이라크의 Karbala 정유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1월9일 발표했다.

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카르빌라 지역에 상압증류 및 감압증류설비 등 원유정제시설과 관련 부대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조인트벤처로 진행된다.

이라크 석유부 산하 석유프로젝트공사(SCOP)가 발주했으며 공사금액은 총 60억4000만달러로 건설기업 지분은 현대건설·현대엔지니어링 40%, GS건설 20%로 알려졌다.

현대건설 및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“공사금액 비율은 합작기업 별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협상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”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4/01/10>